대림산업(주)해운대 대림 아크로텔 현장

▲ 차정구 소장

첫 단추를 꿰매는 마음으로 무재해 준공 이룩

갑신년을 몇 일 앞두고 부산 해운대를 찾았다. 갑신년 새해 첫머리에 소개할 무재해 건설현장이 있다하여 이른아침부터 서둘렀다.

무재해 현장을 가는 길에 지난 태풍 매미로 인한 상처를 여기저기에서 쉽게 볼 수 있었다. 해운대 앞바다에서는 매미의 상처를 치유라도 하듯 맑고 푸른바닷물이 연신 백사장을 들락거린다.

해운대 주변에는 활발한 건축 현장들이 즐비하다. 오늘 찾을 현장도 그 중 하나로, 즐비한 현장들 사이에서 방문할 현장을 찾는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주황색 안전망과 비산방지 덮개가 현장으로 안내해 주었기 때문이다.

현장 내부에 첫발을 내딛으니 외부에서의 느낌 그대로 다가온다. 43%의 공정율을 진척시키는 현장답지 않게 자재하나 나뒹구는 것을 볼 수 없었다.

착공이래 이곳 현장에서 전개하고 있는 담배 꽁초 줍기 운동을 시작으로 오늘의 깨끗한 현장을 꾸밀 수 있었다는 것이 이 곳 관계자의 말이다.

즉, 안전의 기본인 정리 정돈이 대림산업(주)해운대대림아크로텔(차정구 소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할 현장

갑신년 새해에 소개하는 현장으로는 안성 맞춤이라는 생각을 갖고 차정구 소장을 만났다.

차정구 소장은 이 곳 해운대대림아크로텔 현장이 소장으로서의 첫 현장이다. 그래서 첫 단추를 꿰매듯 근로자의 안전에 모든 신경을 집중시킨다. 그동안 안전업무 경력이 8년이나 되지만 안전은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것이 차정구 소장의 말이다. 따라서 이 곳에서는 돌다리를 두드리는 심정으로 하루하루 무재해를 이룩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차정구 소장은 배우고 연구하는 소장으로도 우뚝 서려 한다.

대학 졸업 이후 건설안전을 전공하고 건설현장에 위험성평가를 도입하기 위해 연구하고 있다. 학위논문으로도 발표한 건설현장의 위험성평가에 대해 현재 보완 작업에 열심인 차정구 소장은 건설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위험성평가로 만들기 위해 오늘도 책과 씨름한다.

이런 차정구 소장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건설안전의 방향을 예견할 수 있을 것 같다.

자율안전 여기에 있다

산업현장에서의 안전활동은 결국 자율안전으로 가야한다. 그래야 우리나라의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것이다. 이곳 해운대

대림아크로텔에서는 자율적인 안전활동을 하고있다.

협력업체에서는 자율적으로 자체 월중 안전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한다. 어느 누가 지시하지도 관리하지도 않는다. 협력업체에서 자체 공정에 따라 공정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안전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한다.

이 밖에 근로자 제안제도는 전사적으로 추진되는 자율안전 제도이다.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작업하면서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제안하는 제도로 매일 3건 이상의 제안 사항이 나온다. 현장 근로자들이 안전현장을 위해 발로 뛰며, 직접 참여하는 횟수가 많은 것이 눈에 띈다. 금년도에만 700여건이 이 현장에서 제안되어 개선조치 하였다고 한다. 이는 대림산업 전현장에서 지난해 하반기 최우수 현장과 금년도 상반기 우수현장이라는 결과로 표출되기도 하였다.

대림산업(주)에서는 근로자 제안제도외에 전사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하나 더 있다.

95년부터 시행해 온 1일 안전소장이 그것이다. 90년대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은 안전관리자만 하는 것으로 여겨져 이러한 원시적인 안전마인드를 개선하기 위해 시작한 1일 안전소장은 대림

산업이 국내에서 손꼽히는 안전한 건설회사로 발돋움하는 밑바탕이 되었다.

직원이 돌아가며 그날의 안전소장이 되어 아침조회, 신규자교육, 현장순찰에서 안전일지 작성, 시설물에 대한 문제점 해결 등 전반적인 안전활동을 수행하는 이 제도는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신속하게 발견하고 조치하게 한다.

재래형 재해는 없다

30층의 초고층 오피스텔 현장인 이 곳은 추락, 낙하 등 재래형 재해에 대한 위험 또한 내포하고 있지만 재래형 재해 예방에는 철저하다. 몇가지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 계단실의 안전난간이 그 중 하나이다. 기존

현장에서 흔히 사용되는 단관 파이프가 아닌, 본공사 업체에 의뢰하여 본공사와 같은 난간대를 설치하는 것이다. 또한, 갱폼을 최상층보다 더 높게 설치하고, 개구부는 주문제작하여 자재 반출입시 덮개를 여닫이 할 수 있는 견고한 시스템화하여 설치하였다.

추락위험이 높은 작업을 할 경우에도 "추락위험작업계획서"를 활용한다. "추락위험작업계획서"를 작업 개소에 부착하여, 다른 작업자에게 위험성을 알리고, 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무재해 준공의 해 만들터

2004년도 갑신년은 이 곳 현장이 준공되는 해이다. 얼마 남지 않은 계미년 무사고로 끝마무리를 잘하여 내년에는 무재해, 무하자 준공을 실현할 것이라는 마음이 이 곳 사람들의 의지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도 덜도 아닌 금년만큼만 모두가 함께한다면 무재해 준공은 꿈이 아니라는 것이 강태현 안전관리자의 말이다.

이에 차정구 소장은 직원 개개인의 건강이 중요하며, 건전한 정신과 모범된 행동을 강조한다.

또한, 현장 근로자에게 있어서는 안전수칙이 곧 생명수칙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안전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각인시킨다.

끝으로, 준공 필증을 받는 그 순간부터 입주자가 입주를 완료하는 순간까지 안전모를 벗지 않는다는 해운대 대림아크로텔현장 가족들을 보면서 크게는 무재해 준공을 작게는 차정구 소장의 올바른 첫단추가 잘 꿰매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최종덕 기자〉